

팔조령과 안새부리의 위치에 대한 고찰

배재욱 영남 신대 은퇴교수

요약본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과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경계선에 위치한 팔조령은 대구와 청도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다. 이 중요한 고갯길은 영남지역 최초의 미국선교사 배위량이 1893년 4월 21에 넘어가 대구읍성으로 들어 가고자했다. 그러나 배위량은 자신의 안내인이었던 마부들의 뜻에 따라 그날 팔조령을 넘어 대구읍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골 마을인 안새부리에서 그날 밤에 잠을 자고 22일에 팔조령을 넘어 대구로 들어 갔다. 그런데, 팔조령과 안새부리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배위량으로부터 시작된 대구·경북지역의 선교, 근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조령과 안새부리의 위치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팔조령과 안새부리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팔조령과 안새부리의 위치를 특정하고 그 가치를 찾고자 한다.